

미얀마로의 발빠른 움직임

The Scramble for Burma

새로 개방된 국가에서 기회를 잡으려는 투자자들,
그리고 정치경제 개혁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미얀마

Hannah Beech
Time Magazine pp.38-41 (2013.6.3)

장지인 |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
twomay@si.re.kr



사진 : Sim Chi Yin, Time

1. 개요

타임지는 新개방국가 미얀마의 빈곤한 현실과 함께 자원 활용을 통한 무한한 발전 잠재력에 대해 소개

□ 빈곤국가이지만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미얀마

- 1962년 집권한 군사정권은 미얀마를 50년 동안 외부 세상과 단절시킨 후 2011년에 다시 개방
- 미얀마는 6천만 인구와 함께 풍부한 자원보유국으로 외국 투자자들 사이에 폭발적인 관심의 대상
- 세계에서 가장 큰 옥, 루비와 티크 보유국이며 풍부한 가스 매장량을 보유
- 미국 자본가들 사이에서 몽고, 루마니아, 온두라스, 모잠비크에 이어 미얀마는 新프런티어마켓(frontier market)¹⁾으로 부상
- 그러나 빈번한 정전, 정비되지 않은 도로, 세계에서 가장 불투명한 경제 상황이 공존함

1) 프런티어마켓(frontier market)은 미개척 시장을 일컬음. 차기 신흥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내제

□ 시장개방 전후 미얀마의 대조적인 모습

- 군사정권 전 미얀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쌀 수출국
- 군사정권의 인권탄압으로 서구의 경제제재를 받은 미얀마는 파산 상태
 - 미얀마인의 평균 일당은 \$3
 - 정부규제로 휴대폰 SIM카드 구입비가 \$4,000, 자동차 가격은 \$10,000 이상
- 경제개방 후 언론의 자유 회복, 건설 경기 활성화, 은행개혁 실행 및 복수환율제도 폐지 등 급격한 사회변화 진행

2. 서구 기업 진출현황

적극성을 보이는 기업과 주춤하는 기업으로 분류

□ 2012년 국회 보궐선거 이후 서구 국가들의 발 빠른 움직임

- 아웅 산 수치 민주화 운동 지도자가 20여년 가택연금에서 풀려나고 의원으로 당선
- 서구 정부들은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철회
- 다국적 투자자들의 대거 진출
 - 2011/2012 회계연도에 외국투자가 5배 증가
 - 초기 투자는 의류산업에 치중. 급속한 투자 다양화 예상
- 美 오바마 대통령은 미얀마 대통령인 테인 세인을 워싱턴으로 초청
 - 미얀마와의 무역과 투자 증가 의사 표명

다국적 기업 진출 현황

- ▶ Google의 대표 이사 에릭 슈밋(Eric Schmidt)은 2013년 3월 미얀마 방문
- ▶ 금융가 조지 소로스(George Soros)는 전기통신허가 공동입찰에 참여
- ▶ 스타벅스 대표 이사 하워드 슈츠(Howard Schultz)는 2년 내로 미얀마 진출을 발표
- ▶ KFC, 하이네켄, 칼스버그, 펍시콜라, 코카콜라, 포드 등 이미 진출 확정

□ 망설이는 외국 투자자들

- 다수의 대형 기업들은 아직도 불안정한 미얀마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상황
 - 프라이빗에쿼티(Private Equity, 사적자본) 투자자들은 다음 2015년 선거까지 관망세를 유지할 전망
 - 민족 간 안정과 군사정권의 평화로운 권력이양이 앞으로 미얀마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 과제

3. 미얀마가 직면한 문제들

경제, 정치, 사회별로 문제 도출

□ 경제 : 수요는 있지만 비즈니스 인프라가 열악

- 안정적인 전기 공급, 포장도로, 물류, 중간 관리자, 조세제도, 은행대출, 광산업과 같이 외국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산업에 대한 법규 등이 부족

- 부동산 물량이 없어서 사무실 임대료는 뉴욕 수준으로 고가
- 군사정권과 밀착된 대기업들은 여전히 미얀마의 사업권 및 인허가권을 장악

□ 정치 : 군사정권에서 민주주의 국가로의 발전 필요

- 테인 세인 대통령의 정치경제 개혁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의회는 군대가 총괄
- 정치범 사면의 불이행
- 지역 족장들의 농부 약탈
- 법치가 약하고 평화시위자는 폭행 대상
- 정경유착으로 미국 재무부는 미얀마 개인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미국 기업가들에게 주의하도록 배포

□ 사회 : 미얀마 곳곳에서 민족 반란이 진행 중

- 자원이 풍부한 북쪽 국가경계선의 카친(Kachin)과 샨(Shan) 지역에서 군대와 기독교인의 충돌
- 서부 아라칸(Arakan) 또는 라크힌(Rakhine) 주(州)에서 불교인과 이슬람교인 간 대립
- 2013년 중부 미얀마에서 불교인들과 이슬람교인들 간 분쟁이 유혈사태로 발전되어 다수의 사상자와 수천 명의 난민 발생